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재정착 사례

발표자 : 네팔상담원

근로자	성명	(수러즈)LAMA SURAJ		
	국적	네팔	연락처	
	회사명	트라우트 마차 빠란		
	업종	서비스업	직원수	2명
	소재지	카니코라(카드만두에서 45KM)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사람 수러즈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을 하고, 2012년 5월 1일 한국에 입국하여 충남 천안에 있는 ㈜태성티엘에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온 것이라 일도 힘들고 언어소통과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업장에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온 네팔 동료들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사업주도 잘 해주셨습니다. 낯선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먼저 온 형님들하고 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셔서 적응도 잘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인 동료들도 아주 좋았고 근무환경도 좋아서 저에게는 이상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네팔에서 부터 아는 형님과 친구들도 천안지역에서 일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만나고, 가끔 여행도 가고, 네팔 식당에 가서 네팔음식도 먹고,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서 외롭지도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 공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고, 사업주도 제가 일한 것을 보고 만족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 하지 않고 항상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언젠가 귀국하여 자국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이기 위해 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여 사업을 할 계획을 했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7년 2월 28일 본국에 귀국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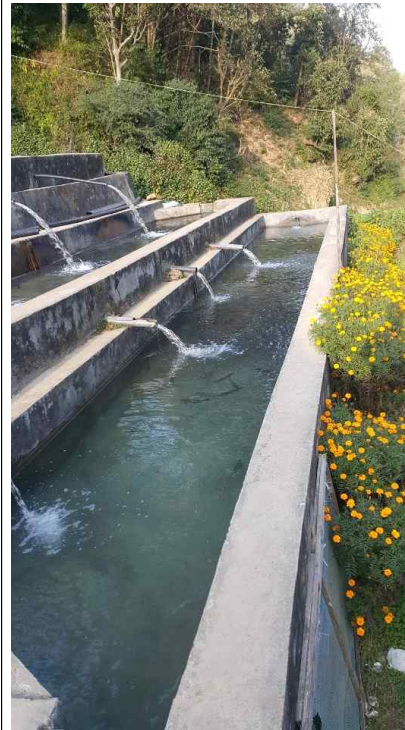
귀국을 하고 6개월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축산업(양계장, 돼지, 양)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귀국한지 8개월 만에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마차 빠란(물고기 양식)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네팔돈 10만루피(1천만원)로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지금은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있으며 양식장 바로 앞에 식당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네팔 근로자들도 체류기간만료 되면 불법체류하지 말고 꼭

본국으로 귀국하여 돈이 많이 없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며, 꼭 출국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9년 4월

※ 사진 첨부



양식

